

扶桑에 관한 일고찰

김 태 도*

目 次

1. 머리말
 2. 중국과 일본의 扶桑
 - 1) 중국의 扶桑
 - 2) 일본의 扶桑
 3. 고려의 扶桑
 - 1) 1352년대 이전의 扶桑
 - 2) 1352년대 이후의 扶桑
 4. 맺음말
-

1. 머리말

본 논문은 한일 간의 문학작품에 묘사되어 있는 양국의 상호간의 이미지 및 인식문제를 연구하는 일환으로서 시도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고려기의 한시문에 나타나는 양국간의 인식문제를 다루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扶桑」에 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사용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다루려고 한다. 그에 앞서서 우선 중국에서의 扶桑의 형상이나 위치, 성격 등을 기술하고 있는 기록물을 초기의 대표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중국의 시인들이 신라·고려·일본과 관련 있는 그들의 작품 속에서 어떻게 扶桑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겠다. 그리고, 일본에서의 부상의 사용예도 분석한 후에 고려의 문인들의 문집류를 중심으로 扶桑이 고려나

* 한서대학교, 부교수

일본을 지칭하는 예를 적출하여 그 경향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이러한 고려문인들의 자아인식이나 타자인식을 규명해 봄으로써 그들의 일본인식의 일면을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그 인식의 원리를 찾아보고자 함을 먼 목표로 두고 있다. 고려 문인들의 扶桑認識을 보다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먼저 중국의 문헌으로부터의 용례를 찾아서 부상의 「개념영역」에 있어서의 「개념요소」를 정리해 보았다¹⁾. 그리고, 당·송·원의 한시문에서 신라·고려·일본의 문인들에게 준 시문을 선별하여 그 속에서 「근원영역」이 어떻게 「목표영역」으로 写像되어 가는 가를 살펴보겠다. 그 다음으로는 일본에서의 사용 예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고려에서의 사용 예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2. 중국과 일본의 扶桑

1) 중국의 부상

본 항목에서는 중국의 문헌 중에서 부상에 관한 기사가 보이는 것을 초기의 것²⁾을 모아 그곳에서의 부상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형상, 성격·기능, 위치)를 살펴 본 후에, 중국의 시인들이 신라·고려·일본인에게 혹은 그 나라로 가는 사신에게 준 시 중에서 「扶桑」이 보이는 것을 대상으로 그 사용 경향을 분석해보기로 하겠다. 우선, 『山海經』 「海外東經」에는,

「湯谷上有扶桑，十日所浴，在黑齒北，居水中，有大木，九日居下枝，一日居上枝。」

(탕곡의 위에는 부상이 있는데 이곳은 열 개의 태양이 목욕하는 곳으로 흑치의 북쪽에 있다. 물 가운데에 큰 나무가 있는데, 아홉 개의 태양이 아래가지에 있고 한 개의 태양이 위 가지에 있다.)

1) 본고에서는 「扶桑」을 환유나 은유표현으로 보았으며, 환유나 은유의 개념이해는 『詩と認知』(大堀俊夫訳・紀伊国屋書店, 原題: 『More Than Cool Reason: A Field Guide to Poetic Metaphor』 George Lakoff and Mark Turner, 1989)에 의거하였다. 본고의 경우 「扶桑」이라는 「개념영역」은 「동쪽바다」 「헤뜨는곳」 「신비로운곳」이라는 「개념요소」를 갖고 각각의 개념요소를 환유하며, 「신라」, 「고려」, 「일본」을 은유한다. 「扶桑」이 「신라」, 「고려」, 「일본」을 은유할 경우, 「扶桑」이라는 「근원영역」인 「동쪽바다」 「헤뜨는곳」 「아득히 먼 곳」 등이 「신라」, 「고려」, 「일본」이 갖는 「목표영역」을 写像한다고 한다. 즉, 「부상」이 갖는 개념요소들이 「신라」, 「고려」, 「일본」이 갖는 개념요소들과 대응된다.

2) 山海經, 呂氏春秋, 淮南子, 太平魚籃(十洲記, 玄中記), 楚辭章句(東君, 玉兔의 注).

고 나와 있다.

이곳에서의 扶桑에 관한 기술은, 부상의 형상과 위치와 장소에 관한 것이다. 扶桑은 가지가 열 개인 커다란 나무로서 각각의 가지에 10개의 태양이 열매처럼 열려있다고 묘사하고 있다. 그 형상으로는 가운데 윗부분에 큰 가지가 있고 아래쪽에 작은 가지가 9개인 커다란 나무(大木)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있는 장소는 물 한복판(水中)이며, 그 위치는 흑치의 북쪽이다.

이상을 그 개념을 나타내는 말로 표현하여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 형상 : 큰 나무 · 가지가 열 개 · 태양을 엮고 있다
- 위치 : 탕곡 위 · 물 한복판 · 흑치의 북쪽

또, 『呂氏春秋』 下, 「求人」 에는,

「禹東至搏木之地, 日出之津, 青羌之野, 攢樹之所, 摺天之山, 暘谷·青丘之鄉, 黑齒之國.」

(禹는 동으로 搏木의 땅, 日出의 나무, 青羌의 들, 攢樹가 있는 곳, 摺天의 산, 양곡·청구의 마을, 흑치국에 이르고....)

라고 있다. 이곳에서는 중국 하나라의 禹왕 때에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國)로 추정되는 곳을 8개 열거하는 중에 그 첫 번째로 「부상의 땅(搏木之地)」을 들고 있다. 이곳에서는 중국의 동쪽에 위치해 있는 나라 이름을 열거하였을 뿐으로 그 가까운 순서대로인지 실제로 그것이 어느 나라를 가리키는지는 알기 어렵다. 이곳에서는 부상의 위치 정도를 알 수 있을 뿐이다.

- 위치 : 중국의 동쪽

또, 『淮南子』 「天文訓」 에는,

「日出于暘谷 浴于咸池 扞于扶桑 是謂晨明」

(해는 暘谷에서 나와 함지에서 목욕하고 부상에서 터는데, 이것을 晨明이라 한다.)

라고 있다. 이것은 새벽해가 떠오르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다. 먼저 해는 暘谷³⁾이라는 곳에서 나와 함지에서 목욕을 한 후에 부상에서 그 물기를 털다는 것으로, 이러한 과정을 「晨明」이라고 한다. 여기서 해가 양곡에서 나와 부상에서 털다고 할 때 해가 수직으로 떠오르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부상은 양곡 위에 위치하는 것이 되며 위에서 든 『山海經』에서의 위치와 같은 것이 된다. 또, 함지에서 목욕한다고 하였으니, 함지는 큰물로서 『山海經』에서 부상이 물 한복판(水中)에 있다고 한 것과는 통하는 것이다.

위치 : 탕곡 위 · 함지 가운데 (물 한복판).

기능 : 해가 물을 털다. (해가 물을 털듯이 수평선에 떠오르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說文解字』에도,

「搏桑, 神木, 日所出也. 日初出東方湯谷所登搏桑, 若木也」

(부상은 신목으로 해가 뜨는 곳이다. 해는 처음 동쪽의 탕곡에서 떠서 부상에 오르는데, 이는 약목이다)

라고 있다. 여기서도 해가 동쪽의 탕곡에서 나와 부상으로 오른다고 하여 위의 『山海經』이나 『淮南子』에서와 같은데, 부상이 「神木」과 「해가 나오는 곳」이라는 의미가 첨가되었다.

위치 : 동쪽 · 탕곡 위

성격 : 神木 · 해 나오는 곳

『太平御覽』에 보이는 『十洲記』에서의 扶桑에 관한 이야기로서,

「十洲記曰, 扶桑在碧海中, 上有天帝宮東王公所治, 有榘樹, 長數千丈二千圍, 兩兩同根更相依倚, 故曰, 扶桑. 仙人其食榘榘體作金色, 其樹雖大榘如中夏桑榘也. 稀而色赤九千歲一生實耳, 味甘香.」

(십주기에 이르기를, 부상은 벽해 중에 있다. 위로는 東王公이 다스리는 곳인 天帝宮이 있다. 榘樹가 있는데 길이가 千丈에 이천 아름답다, 두 개 두 개가

3) 山海經에서의 湯谷과 같은 것이다.

같은 뿌리이고 서로 의지하고 있어 이르기를 扶桑이라 한다. 仙人이 그 오디를 먹는데 오디는 금색을 이룬다. 그 나무가 큰 오디를 열지만 중국의 뽕 열매와 같다. 회귀하며 색이 붉고 9천년에 한번 열매를 맺을 뿐이다. 맛은 달콤한 향이 있다.)

라고 있다. ‘부상은 큰 바다 속에 있는 천제궁(하늘)에 닿을 만큼 높고 크며 두 개의 가지가 서로 의지하듯이 나 있는 나무이다. 그리고 9천년에 한번 붉고 달콤한 열매(큰 오디)를 맺는다. 그 부상나무가 있는 지역에는 仙人⁴⁾이 살며 그 열매를 먹는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부상나무가 있는 지역이 선인이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계를 떠난 미지의 신비로운 세계라는 개념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그 내용을 개념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위치·성격 : 碧海中· 위에는 東王公⁵⁾이 다스리는 곳인 天帝宮이 있다.
- 형상 : 하늘에 닿을 만큼 큰 나무·두 줄기나무이다. 신비로운 열매.
- 환경 : 仙人이 산다(신비로운 곳).

또, 『太平御覽』의 『玄中記』에서는,

「玄中記曰, 天下之高者扶桑, 無枝木焉, 上至天盤蜿而下屈通三泉。」
(玄中記에서 말하기를, 천하의 높은 것이 扶桑이다. 가지가 없는 나무이다. 위로는 天盤에 이르고 꿈틀꿈틀하며 아래로 굽이쳐서 三泉에 이른다.)

라고 있다. 여기서는 위로 天盤⁶⁾에 이르고 아래로는 三泉⁷⁾에 통한다고 하여, 지하세계(황천)로 통하는 존재로서도 묘사되고 있다. 여기서의 天盤에 이른다는 말은 하늘로 통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어둠의 세계와 태양이 있는 하늘의 밝은 세계와 연결해 주는 존재라는 의미로 생각되어진다.

4) 道家에서의 理想像으로 상상 속의 인물. 인간계를 떠나 山中에 살며 不老不死의 法을 수행하여 신 통술을 체득한자. 『史記』 「封禪書」 蓋嘗有至者, 諸僊人, 乃不死之藥皆在焉. (『日本國語大辭典』, 小學館)

5) 東王父와 같다. 陽氣의 精이라고 하는 중국 전설상의 仙人으로 남자 仙人을 다스리는 존재. 서왕 모의 남편이라 한다. 『神異經』 「東荒經」 東荒山中有大石室, 東王公居焉(『日本國語大辭典』, 小學館).

6) 터널 등의 天井.

7) 地底. 죽은 자가 가는 세계. 冥土. 黃泉. 九泉. 『史記』 「秦始皇本紀」 穿三泉, 下銅而致禱(『日本國語大辭典』, 小學館)

형상·성격 : 세상에서 가장 높다·無枝·天盤에 이른다·三泉에 通한다.

또, 『楚辭章句』, 「東君」에,

「暾將出兮東方, 照吾檻兮扶桑。」

(밝고 따사롭게 동쪽에서 떠올라, 내 난간 扶桑을 비추네)

라고 있고, 그에 대한 王逸의 注에,

「謂日始出東方, 其容暾暾而盛大也. 吾謂日也. 言東方有扶桑之木. 其高万仞. 日出下浴於湯谷, 上扞其扶桑, 爰始而登, 照曜四方.

(해가 처음 동쪽에서 떠오를 때 그 모습이 온화하고 성대한 것을 말한다. ‘吾’는 해를 이르고, 檻은 난간이다. 동방에는 부상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그 높이가 만길이다. 해가 떠서 아래 湯谷에서 목욕하고, 위로 부상을 스치며 떠오르기 시작하여, 사방을 밝게 비추는 것을 말한다.)

라고 있다. 위의 예로부터는 扶桑이 「東君」의 난간이라는 기술이 주목된다. 扶桑이 日神인 東君⁸⁾의 난간이라고 하니 곧 그의 거주지가 되는 것이다.

형상 : 万仞(만길)

위치 : 동방·탕곡의 위

성격 : 동군(日神)의 난간(거주지)

기능 : 물을 터는 곳

이상으로 6개의 중국문헌에 보이는 扶桑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그 개념 요소들을 정리해 보았는데, 그것을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표1) 중국문헌에 보이는 부상의 개념요소

| 작품명 | 부상의 크기와 형상 | 성격·기능 | 위치 |
|-------|----------------------|-------|-------------------|
| 『山海經』 | 큰 나무·가지가 열개·태양을 엮고 있 | | 탕곡 위·물 한복판·혹치의 북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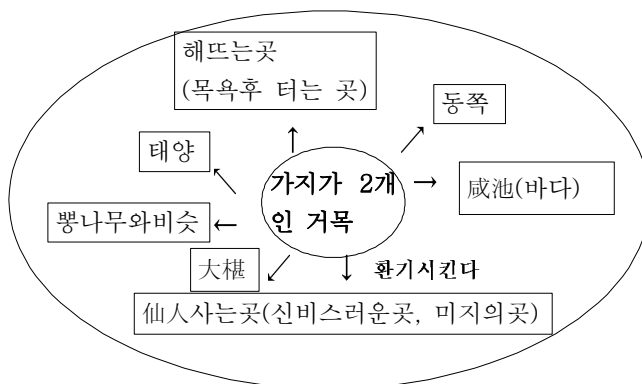
8) 東君이 楚나라 민족의 조상신이고 日神임을 고찰한 논문 참조 (『楚辭<<九歌·東君>> 巫儀와 扶桑神話』, 尹順, 國際文化研究 제8집).

| | | | |
|-----------------------|------------------------------|---|---------------------------------|
| | 다 | | |
| 『呂氏春秋』 | | | 중국의 동쪽 |
| 『淮南子』 | | 해가 물을 던다. 扶于扶桑 (해가 물을 털듯이 수평선에 떠오르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 탕곡 위·함지 가운데 (물 한복판). |
| 『說文解字』 | | 神木 · 해 나오는 곳(日所出也) | 동쪽 · 탕곡 위 |
| 『十洲記』 | 하늘에 닿을 만큼 크다. 두 줄기. 신비로운 열매. | 선인이 산다(신비로운 미지의 세계) | 碧海中· 위에는 東王公 이 다스리는 곳인 天帝 院 있다. |
| 『玄中記』 | 세상에서 가장 높다 · 無枝 | | 天盤(하늘)에 이른다. 三 泉(지하, 황천)에 통한다. |
| 『楚辭章句』의 「東君」과 「王逸의 註」 | 万仞(만길) | 東君의 난간(거주지) · 물을 터는 곳 | 동쪽 · 탕곡의 위 |

위의 표에 정리한 바와 같은 「扶桑」에 관한 개념요소들이 형성되어 중국이나 고려, 일본 등에서는 한시문을 제작 할 때에 하나의 수사법으로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扶桑」이 갖는 기본 개념요소인 「해 뜨는 곳」 「동쪽」 「동쪽바다」 「먼곳」과 같은 요소들을 실제 해돋이나 동녘, 동쪽바다 등을 지칭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 본고에서 분석기법의 근거로 삼는 『詩と認知』⁹⁾에서는 이를 환유¹⁰⁾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환유적인 것

9) 주1)참조

10) 환유 (부상의 개념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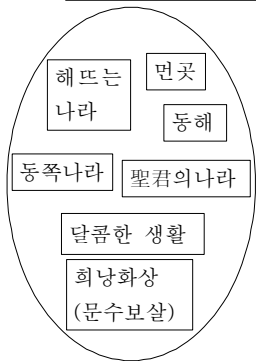
으로 「扶桑」을 사용하면서 또한 동쪽에 있는 나라인 신라·고려·일본을 은유¹¹⁾할 때도 있다. 본고에서는, 중국인(唐,宋,元)·일본인·고려인들이 각각 「扶桑」을 어떤 나라(신라·고려·일본)를 은유해서 사용하는 예만을 뽑아서 그것이 환유·은유하는 근거와, 시문에서 나타나는 각각의 나라에 대한 개념요소를 적출하여, 위의 표1)에서 정리한 바와 같은 개념요소들과 어떻게 일치되는가를 대비하여 「扶桑」이라는 수사어의 사용상의 특색을 밝혀보고자 하는 것이다.

다음에는, 중국의 시인들이 일본이나 신라(혹은 고려)의 승려나 사신에게 준 한시 중에서 부상이 보이는 것들을 모아 보았다. 그 중에는 신라나 고려에 파견되는 중국 사신에게 준 송별 시도 포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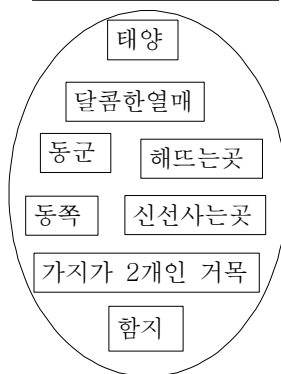
우선, 일본과 관련이 있는 시부터 살펴보기로 하겠다. 모두 10수인데, 많은 것이 일본과 부상의 위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물론 부상이 일본을 은유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아래에 「扶桑」이 보이는 句를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적시하였다.

- 1) 鄉樹扶桑外, 主人孤島中.(鄉樹는 부상 밖, 주인은 외로운 섬 안.) ; 王維, 送秘書晁監還日本國
- 2) 遙指來從初日外, 始知更有扶桑東.(멀리 가리킨다 첫 해의 바깥에서 왔다고, 비로소 알겠네 더욱 부상의 동쪽이 있음을.) ; 劉長卿 同崔載華贈日本聘使
- 3) 絕國將無外, 扶桑更有東。(絕國은 그야말로 바깥이 없다고 하는데, 부상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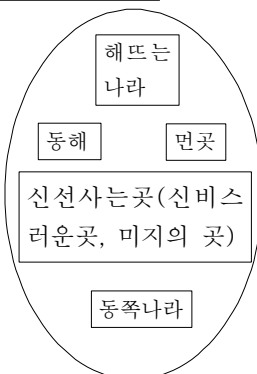
11) 신라·고려 (목표영역)



은유(부상의 근원영역)



일본 (목표영역)



寫像 ←

寫像 ⇒

- 더욱 동쪽이 있네.) ; 徐凝(9세기초), 送日本使還
- 4) 大海浪中分国界, 扶桑樹底是天涯。(큰 바다 물결 속에 나라의 경계가 나뉘고, 부상 나무의 밑둥지 이는 먼 나라.) ; 方干, 送僧歸日本
- 5) 扶桑已在渺茫中, 家在扶桑東更東。(부상조차 이미 묘망 속에 있는데, 집은 부상 동쪽의 더욱 동쪽에 있네.) ; 韋莊, 送日本國僧敬童歸
- 6) 扶桑一念到 風水豈勞形 (부상도 일념으로 당도할 것인데, 바람과 물 어찌 형상을 수고롭게 하리.); 吳顥, 送最澄上人還日本國
- 7) 歸到扶桑國, 迎人擁海燭 (돌아가 부상국에 당도하여, 맞는 이 끌어안으니 바다가 따뜻하네.) ; 許蘭, 送最澄上人還日本國
- 8) 家與扶桑近, 煙波望不窮 (집이 부상과 가까워, 뿌연 물결은 다 바라보기 어렵네.) ; 全濟時, 送最澄上人還日本國
- 9) 却返扶桑路, 還乘舊葉船 (되돌아가는 부상 길, 또 다시 타는 舊葉船) ; 幻夢, 送最澄上人還日本國
- 10) 上人ノ住ハ扶桑國ニ近ク、我が家モ亦、蓬萊丘ニ在) (上인의 집은 부상국에 가깝고, 우리 집도 또한, 봉래구에 있네.) ; 王冕, 願上人ノ日本ニ歸ルヲ送ル

1)에서 9)까지는 8, 9세기경 당나라 시인의 작품이고¹²⁾, 10)은 14세기 무렵의 원나라 시인의 작품¹³⁾이다. 그 중에서 1), 2), 3), 5)는 부상과 일본의 위치 관계를 읊고 있는데, 분명히 일본과 부상을 별개의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의 王維의 시에서, 晁監(=安部仲麻呂)의 고향 나무는 부상의 바깥에 있다고 하므로, 일본은 부상의 바깥 즉, 더욱 먼 곳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¹⁴⁾ 그러면, 여기에서의 부상은 어디에 있는 것이며 무엇을 지칭하고 있는 것일까? 부상이 일본보다는 서쪽에 있다는 인식이기 때문에, 일본과 중국의 사이에 있는 중국의 동해(혹은 남해?)나 한반도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겠는가? 혹은 제3의 섬이라도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다만 막연하게 일본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미지의 세계인 먼 곳이라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2),3),5)의 「更有扶桑東」, 「扶桑更有東」, 「扶桑已在渺茫中, 家在扶桑東更東」에서도 부상의 동쪽이 있음을 새삼 알

12) 『全唐詩』 소개.

13) 『五山文學集』(日本古典文學大系所収, 岩波書店)의 補注387 페이지로부터 인용

14) 柴田清繼(「伝説上の海島と日本」)와 같이 다수의 일본학자들은 일본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지만, 中小路駿逸(「王維が安部仲麻呂に贈った詩にあらわれる「九州」、「扶桑」および「孤島」の意味について」) 같은 이는 3句인 「九州何処遠」의 九州를 현재 일본의 그것으로 해석하며 이 九州가 곧 扶桑로서 일본은 이 扶桑의 바깥 즉, 近畿 지방의 도성을 가리킨다고 해석하고 있는 이도 있다. 이 경우, 『隋書』의 「日出處之天子」를 근거로 왜국이 있던 九州를 扶桑으로 인식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게 되었다든지, 부상으로부터 동쪽이 더 있다는 것, 즉 일본은 부상의 더욱 동쪽에 있다는 인식이 보인다. 아무튼 이곳에서는 일본과 부상은 별개의 존재로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4),6),7),9)는 부상이 일본을 은유하거나 보다 더 직설적인 표현으로 일본임을 말하고 있다. 4)에서는 부상 나무의 밑둥지(底)가 곧 天涯(일본)라고 하여 부상나무의 일부분 중에서 탕곡에 보다 더 가까운 뿌리 부분이 일본이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6)에서는 부상을 일본에 비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7)이나 9)에서는 보다 더 분명한 표현으로 「扶桑国」이라든지 「扶桑路」라고 하여 일본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扶桑路」는 「일본으로 가는 길」이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지만 「동해의 길」이라는 의미로서 동해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또, 8)에서는 집이 부상에 가깝다고 하여 집이 있는 일본과 부상을 별개로 보고 있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10)에서도 분명히 上人の 집이 부상국에 가깝다고 하여 일본과 扶桑国은 별개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위의 7)의 「扶桑国」은 일본 그 자체를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는데, 이곳에서의 「부상의 나라」는 어느 곳을 가리키는 것일까? 다음 항목에서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고려」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원나라 시인들의 예에서 부상을 일본으로 읊은 것은 아직 보이지 않으며 고려를 읊은 예는 다수가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본이 부상국 그 자체가 아니라 그곳에 가깝다고 하고 있으니 이는 일본이 아님은 분명하다.

표2) 중국인이 일본인에게 준 시문 중의 환유·은유·개념요소

| | 환유 | 은유 | 일본의 개념요소 |
|-----|---|----|---|
| 1) | 당나라의 동해 or 신라 or 해 뜨는 곳 or 부상나무 or 부상나무 있는 지역 | | 부상의 바깥, 오직 해만 보이는 곳, 외로운 섬, 아주 먼 곳(소식 통할 것을 걱정) |
| 2) | 상 동 | | 부상의 동쪽, 積水 저편, 멀다, 첫해의 바깥 |
| 3) | 상 동 | | 부상의 더욱 동쪽, 來朝하는 곳, 너른 바다 가운데(蒼莽中), 水府, 仙宮, 아득히 멀다 |
| 4) | 부상나무 | 일본 | 동녘, 먼 나라, 일본은 부상나무 밑둥지(扶桑樹底), 큰 바다물결 속에서 나라경계 나뉜다 |
| 5) | 당나라의 동해 or 신라 or 해 뜨는 곳 or 부상나무 or 부상나무 있는 지역 | | 부상 동쪽의 더욱 동쪽(부상조차도 묘망 속에 있다), 너른 바다 속 |
| 6) | 동쪽지역 | 일본 | 물(水) |
| 7) | 동쪽 or 해 뜨는 곳 | 일본 | 扶桑國이다, 바다가 따뜻하다(海燠) |
| 8) | 당나라의 동해 or 신라 or 해 뜨는 곳 or 부상나무 or 부상나무 있는 지역 | | 부상과 가깝다, 먼 바다 |
| 9) | 당나라의 동해 | | 바다 |
| 10) | 원나라의 동쪽나라 (扶桑國) | 고려 | 扶桑國에 가깝다 |

이처럼 10수의 한시로부터 부상의 사용 예를 보면, 일본과 부상을 별개의 것으로 보며 일본의 서쪽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기도 하고 혹은 소수지만 일본과 동일시하기도 하고 있다.

또, 4),6),7)처럼 일본을 은유하는 것들을 <표2>에서처럼 <일본의 개념요소>들 중, 앞의 <표1 중국 문헌에 보이는 부상의 개념요소>의 개념요소들과 일치하는 내용들을 보면, <동녘>, <먼 나라>, <부상나무> 정도이다. 즉, 이곳에서의 부상은 방향이나 거리, 부상나무를 가리키는 정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상을 일본과 다른 곳으로 인식하고 있는 1,2,3,5,8,9)의 경우에도, 「외로운 섬, 먼 곳, 해, 동쪽, 너른 바다」 등과 같은 개념요소들은 「扶桑的」인 요소를 보이고는 있다.

다음으로, 신라나 고려인에게 준 한시나 신라로 사신가는 중국인에게 준 송별시에 부상이 보이는 것을 모아보면 15수가 보인다.

- 1) 永向扶桑老, 知無再少年。(언제까지고 부상을 향하여 늙어, 알 것이로다 다시 소년이 되는 일은 없으리라는 것을); 張喬 (送新羅僧)
- 2) 積愁窮地角, 見日上扶桑。(쌓인 수심 땅끝에 다한데, 해를 보니 부상에 오르네.); 貫休 (送人婦新羅)
- 3) 扶桑枝西真氣奇, 古人呼為獅子兒。(부상 가지 서쪽의 真氣가 뛰어남에, 옛 사람은 불러 사자 새끼라 하였다.); 貫休 (送新羅衲僧)
- 4) 東望扶桑日, 何年是到時。(동쪽 부상의 해를 보니, 어느 해가 이곳에 당도한 때인가?); 李益 (送歸中丞使新羅冊立弔祭)
- 5) 想見扶桑受恩處, 一時西拜盡傾心。(생각건대 부상은 은혜를 입은 곳 같으니, 한때 네 번 절하여 마음을 다하였었지.); 劉禹錫 (送源中丞充新羅冊立使)
- 6) 誰得似君將雨露, 海東萬里灑扶桑。(누가 장차 그대처럼 雨露를 얻으리, 해동만리 부상에 (그 雨露를) 흘뿌리소서.); 殷堯藩 (送源中丞使新羅)
- 7) 海水無波分島嶼, 扶桑見日認藩垣。(잠잠한 바닷물이 작은 섬과 큰 섬을 갈라놓았는데 / 부상에 해 뜨니 변원<고려>임을 알겠네.); 王禹偁 (送柴郎中使高麗)
- 8) 海波浴日扶桑東, 三韓照耀圖書叢。(扶桑 동쪽에서 바닷물결이 햇빛을 받으며 넘실거리, 삼한은 글을 숭상하여 이름이 빛났네.); 程謙 1차 송별시 (1334년)
- 9) 日出扶桑煙漠漠, 春生孤島水泠泠。(해가 扶桑에 뜨니 연기가 아득히 깔리

- 고, 외로운 섬에 봄기운 감도니 물이 차가와라.) ; 趙郡 蘇天爵 2차 송별시 (1337년)
- 10) 花開百濟春山裏, 雞唱扶桑曉日邊。(꽃은 백제의 춘산 속에 피었고, 닭은 부상의 새벽을 알리네.) ; 安成 劉闕 2차 송별시 (1337년)
- 11) 扶桑日近收成早, 鴨綠江深灌溉多。(해돋는 곳이 가까우니 收成이 일러, 압록강 물이 깊으니 밭에 물 댈 수 있네.) ; 南陽 成遵 2차 송별시 (1337년)
- 12) 坐見遠人懷聖化, 要令聲教徹扶桑。(앉아서 먼 곳 사람이 聖化에 짓는 것 보니, 聲教를 부상에 깊이 심으리.) ; 華峯張起岩 3차 송별시 (1346년)
- 13) 團團海日扶桑曙, 渺渺雲槎弱水寒。(바다에서 떠오르는 둥근 해에 부상의 아침이 밝아, 배는 아득한 바다 위에 가물거리고 弱水는 차네.) ; 南陽 3차 송별시 (1346년)
- 14) 扶桑萬里海波清(부상 만리에 바닷 물결 맑아라.) ; 方道叡 ; 3차 송별시 (1346년)
- 15) 遙天雪霽扶桑國, 大地春生鴨綠池。(부상의 나라 먼 하늘에 눈이 녹아, 大地의 봄빛이 압록강 물 위에 움직이네.) ; 番易 周噉 3차 송별시 (1346년)

위의 신라나 고려 관련의 漢詩¹⁵⁾에서도 扶桑은 <동쪽> <동해> <해 뜨는 곳> <부상나무 자체> <부상나무가 있는 어느 지역>을 가리키는 말로서 사용되며 그 중에서 많게는 은유적으로 신라나 고려를 표현하고 있다. 1)부터 15)에서 부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를 전체 문맥상으로 보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6)은 9세기 무렵의 당나라 시인들의 것이고 7)은 10세기 후반의 송나라 시인의 것, 8)-15)는 14세기 중엽의 원나라 시인들의 것이다. 15개의 예 중에서 3개 즉, 1)과 11),13)은 신라나 고려가 단지 동쪽 혹은 동쪽바다의 해 뜨는 곳으로서 부상에 가깝다는 정도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12개의 예에서는 부상이 신라나 고려를 은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3),5),6),8),12),15)의 경우는 다른 예에 비해 보다 확실히 신라나 고려를 은유표현 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3)은 신라에서 온 뛰어난 승려를 칭송하며 송별하는 시로서, 그 신라 승려를 부상 나뭇가지의 서쪽가지에 비유하고 있다. 그리고 그 서쪽 가지의 정기가 뛰어나서

15) 1)-6)은 『全唐詩』, 7)은 『宋詩』, 8)-15)는 『稼亭雜錄』 소재의 漢詩이다. 이 중, 특히 『稼亭雜錄』 소재의 漢詩는 稼亭 李穀이 3차례 원나라를 다녀 올 때, 원나라 문사들이 송별시를 준 것이다. 8)은 1차(1334년) 송별시이고, 9-11)은 2차(1337년) 송별시, 12-15)는 3차(1346년) 송별시이다. 이곡과 교류하며 송별시를 준 원나라 문사에 관한 고찰은 「稼亭李穀과 元 士大夫와의 交遊」(高惠玲, 碧史李佑成教授停年退職紀念論叢, 1990), 「麗·元間 文學交流에 대하여」(金時鄴, 韓國漢文學研究 제5집, 1980) 참조.

옛사람은 그 승려를 <사자새끼(부처님 정도의 불성을 가진 승려)> 라 칭송하였다는 것이다. 이로보아 여기서의 부상은 곧 신라를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6)은 신라왕의 책봉사로 신라로 파견되는 당나라 사신을 송별하는 시로서, 그 사신의 임무가 당나라 천자의 은혜 배품(德音이나 雨露)에 있음을 나타내며 그 덕음이나 우로를 전하고 뿌리는 곳은 부상이라고 하니 곧 그곳이 신라임을 알 수 있다. 8)은 이곡이 원나라에서 문장으로 인정받아 황제를 모셨던 영광을 회고하고 그와의 석별의 정을 읊은 것으로, 바다의 물결이 부상의 동쪽에서 해를 목욕 시킨다고 하므로(동해물결에 해가 떠오르며 일렁이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함), 이곳에서의 부상은 동해의 서쪽을 가리키는 것으로 고려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2)는 이곡이 고향으로 돌아가 원나라 천자의 声教를 심을 것을 기대한다는 취지의 시로서, 그 성교를 심을 곳은 부상이니 곧 고려를 말하고 있다. 15)도 위의 것과 대략 같은 취지의 것으로, 고려를 <부상>의 나라라고 하여 보다 직접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

이상으로 8, 9세기의 당나라 시인들과 10세기의 송나라 시인, 14세기 중엽의 원나라 시인의 시중에서 신라나 고려와 관계되는 것들 중에서 부상의 쓰임새를 살펴보았는데, 대부분이 신라나 고려를 <부상>으로 은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을 각각의 시문 속에 보이는 신라나 고려의 개념요소와 함께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3) 중국인이 신라·고려인에게 준 시문 중의 환유·은유와 개념요소

| | 환유 | 은유 | 신라나 고려의 개념요소 |
|----|--------------------------------------|----|--|
| 1) | 동쪽 and 해 뜨는 곳 (부상에 가깝다는 발상으로 보임) | | 부상을 향한 곳, 동쪽, 바다, 선을 배우러 오다 |
| 2) | 당나라의 동쪽바다 and 해 뜨는 곳 = 신라 쪽 | 신라 | 동쪽, 바닷물이 어지러이 흐르는 곳 |
| 3) | 부상나무 (서쪽가지 = 신라) | 신라 | 부상의 서쪽가지, 뛰어난 승려가 온 곳(사자새끼, 내가 부끄러울 정도) |
| 4) | 중국의 동해 and 해 뜨는 곳 | 신라 | 積水의 동쪽, 넓고 아득, 파도 높다, 오랑개(夷) |
| 5) | 동쪽 or 해 뜨는 곳 or 부상나무 or 부상나무 있는 지역 | 신라 | 동쪽, 태양이 목욕하는 곳(日浴), 큰 파도와 물결 |
| 6) | 동쪽 or 해 뜨는 곳 or 부상나무 or 부상나무 있는 지역 | 신라 | 길이 멀고 산천이 다르다, 낯선 바다, 외국(殊方), 오랑개, 詔撫하는 곳, 은택(雨露)을 뿌려야 할 곳 |
| 7) | 동쪽 and 해 뜨는 곳 | 고려 | 해 뜨는 곳, 잠잠한 바닷물, 藩垣, 東夷 |
| 8) | 고려 (바다물결이 부상의 동쪽에서 해를 목욕시킨다고 하므로 부상은 | 고려 | 동쪽, 동해, 해 뜨는 곳, 멀다, 글 승상, 바다의 진미가 나는 곳, 化風化雨에 젖었다 |

| | | | |
|-----|------------------------------------|----|--|
| | 동해의 서쪽 즉 고려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임) | | |
| 9) | 동쪽 and 해 뜨는 곳 | 고려 | 해 뜨는 곳, 외로운 섬, 연기가 깔리고 물이 차다 |
| 10) | 동쪽 and 해 뜨는 곳 | 고려 | 동쪽, 해 뜨는 곳(답이 울어 새벽을 알린다), 벼농사를 지어 풍요로운 곳, 태평성가의 곳 |
| 11) | 해 뜨는 곳 | | 부상의 해가 가깝다, 수확이 이르다, 압록강 물 깊다, 쌀농사 풍요, 양잠성행 |
| 12) | 동쪽 or 해 뜨는 곳 or 부상나무 or 부상나무 있는 지역 | 고려 | 동쪽, 먼 곳, 陪臣의 나라, 分封國, 聲教를 심어야 하는 대상 |
| 13) | 원나라의 동쪽바다 and 해 뜨는 곳 | | 아득히 먼 바다, 동근 해, 二韓(임둔, 현도) |
| 14) | 원나라의 동쪽바다 | 고려 | 동쪽, 먼 곳, 바다물결 맑다(萬里海波清), 계림, 중국의 제도가 빛나는 곳 |
| 15) | 동쪽 or 해 뜨는 곳 or 부상나무 or 부상목이 있는 지역 | 고려 | 먼 곳, 고려, 압록강 가, 원나라의 曆書를 받는 곳 |

위의 <표>에서 1),11),13) 외에는 부상을 은유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각각의 시 속에서 신라나 고려에 관한 것을 <개념>으로서 정리해 보았다. 지면 형편상 시의 전문은 신지 못하였다. 이곳에서도 각각의 시의 개념요소와 <표1 중국 문헌에 보이는 부상의 개념요소>에 보이는 개념요소와의 일치되는 부분을 대비해 적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2)는 <동쪽>, <바다>, 3)은 <부상나무>, 4)는 <동쪽>, <멀다>, <넓은 바다>, 5)는 <동쪽>, <태양이 목욕>, <바다>, 6)은 <멀다>, 8)은 <동쪽>, <동해>, <해뜨는 곳>, <멀다>, 9)는 <해뜨는곳>, <외로운섬>, 10)은 <동쪽>, <해뜨는곳>, 12)는 <동쪽> <먼곳>, 14)는 <동쪽>, <먼곳>, <바다>, 15)는 <먼곳> 과 같다. 이들 개념요소들을 중복되는 것들을 하나로 정리해 열거해보면, <동쪽>, <바다>, <멀다>, <태양>, <태양이 목욕>, <해뜨는곳>, <부상나무>, <외로운곳=신선 사는 곳>이 된다. 대부분 <동쪽>, <먼곳>이라는 방향이나 거리를 나타내는 개념요소와 <해뜨는곳>, <태양>이라는 태양이 떠오르는 개념요소, <외로운곳=신선 사는 곳>이라는 개념요소로 크게 세 가지의 개념요소로 정리가 된다. 즉, 이곳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의 의미 정도로 부상이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일본의 부상

다음은 일본의 문학작품에 사용되고 있는 부상의 용례를 수집하여, 그 의미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일본의 경우는 부상을 문학적인 修辭로서 사용하는 예가 많이 보이지 않는다. 1400년대 이전의 것에 한하여 찾아보았으나 모두 6예에 불과하였다. 그 중에서도 한시에 사용되는 예는 3예에 불과

하다. 아래에 열거하겠다.

- 1) 纏向日代宮御宇大足彦天皇之世、幸_二兒湯之郡_一、遊_二於丹裳之小野_一。謂_二左右_一曰「此国之形、直向_二扶桑_一。宜号_二日向_一也」。 (纏向日代宮에서 천하를 다스린 大足彦天皇 때에, 兒湯之郡에 행차하시어 丹裳之小野에서 노시었다. 그 때,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이 나라의 지형은 똑바로 태양이 나오는 방향으로 향해 있다. 그러니 히무카(日向)라 이름 짓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 景行天皇 (日向国風土記)
- 2) 日本國,自大唐東去万餘里,日出東方,昇於扶桑,故云_二日本_一 (일본국은 大唐으로부터 동으로 만 여리를 간다. 해는 동방으로 나와서 부상에 떠오른다. 그래서 일본이라고 한다.) ; 弘仁私記
- 3) 雲擎紅鏡扶桑日 / 春嫋黃珠嫩柳風 (구름이 붉은 거울을 받들어 올리듯이 보이는 것은 부상의 해이고/ 봄에 노란 구슬이 산들산들 흔들리는 것은 어린 버드나무 꽃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다.) ; 島田忠臣, 「早春」 和漢朗詠集 卷上、春部「柳」 16)
- 4) 扶桑豈無影乎 浮雲掩而忽昏 / 叢蘭豈不芳乎 秋風吹而先敗 (햇빛이 없어지는 일이 어찌 있겠는가만/ 浮雲에 덮여서 순식간에 어두워지는 일이 있고, 叢蘭이 어찌 향기롭지 않겠는가만/ 가을바람에 먼저 향기를 잃는 일이 있네) ; 中書王, 「菟裘賦」 17)
- 5) 日本國亦云瑞德國亦野馬臺、又秋津嶋又扶桑等云々 (일본국은 미즈호노구니 또는 야마토, 또는 아키츠시마 또는 扶桑 등이라 한다) ; 日蓮, 『神國王御書』
- 6) 蒼雲深擁萬松行, 一徑斜投古佛場, 宿鷺亭前人不見, 澗然斫額望扶桑 (푸른 구름은 빼곡한 소나무들을 품에 안고, <그 소나무 사이를> 한줄기 오솔길이 <구불구불> 제멋대로 이어진 <꼭대기의> 옛 절, 宿鷺亭 앞에는 사람도 보이지 않는데, 눈물을 흘리며 이마에 손을 짚고 부상을 바라본다.) ; 天岸慧廣, 『東歸集』, 「遊天童」

1)은 大足彦天皇¹⁸⁾이 宮崎県日向지방에 행차하였을 때, 동쪽으로 바다(태평양)가 펼쳐진 것을 보고 日向(히무카=휴가)라고 이름 지었다는 일화로서, 여기서의 扶桑은 <동쪽바다>와 <해 뜨는 곳>을 환유한다고 볼 수 있다.

2)는 弘仁4年 (813년)에 만들어진 『日本書紀』講書の 강의록인 『弘仁私記』의 기사이다. 여기서의 부상은 일단 <동쪽바다>와 <해 뜨는 곳>을

16)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小学館, 71페이지.

17) 977년작, 和漢朗詠集 卷上、秋部「蘭」(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小学館, 157페이지)

18) 景行天皇, 서기 71년-130년 재위.

환유한다고 볼 수 있는데, 해가 부상에 떠오르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국호를 사용한다고 하므로, 부상은 일본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의 한시에서는 단지 <해 뜨는 곳>을 환유하고 있을 뿐이다.

4)의 한시는, 작자가 関白 藤原兼通 때문에 좌대신을 파면 당했을 때, 이賦를 지은 것이라고 한다. 이곳에서의 부상은 태양을 환유하며, 이 태양은 다시 천자 혹은 작자 자신을 은유하는 것으로서 兼通(가네미치)로 인해 자신이 천황의 총애를 잃은 것을 빗대어 읊고 있다.

5)는 은유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日蓮이 일본의 호칭이 여러 개 있음을 열거하는 가운데 이 부상이라는 호칭이 보이는 것이다. 일본의 별칭으로서 부상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6)의 한시는, 天岸慧広 (1273~1335)가 1320년 元나라 때에 天童寺¹⁹⁾에 가서 求法을 한 후 1329년에 귀국하였는데 元에 있을 당시 고국이 그리워 일본 쪽을 바라보며 지은 시이다. 여기서의 부상은 <동쪽>과 <일본 쪽>을 환유 한 후에, <일본>을 은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으로 일본에서 부상이 사용된 한시문 및 기록을 적시하고 그 부상의 환유와 은유를 살펴보았는데, 그것을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표4) 일본인의 작품에 보이는 부상의 환유·은유와 일본의 개념요소

| | 환유 | 은유 | 일본의 개념요소 |
|----|-----------------|----------------------------|--|
| 1) | 동쪽바다 and 해 뜨는 곳 | | 지형이 태양 나오는 방향, 이름을 히무카(日向)라 하는 게 좋겠다 |
| 2) | 동쪽바다 and 해 뜨는 곳 | 일본 | 大唐으로부터 동으로 만 여러, 해는 동방에서 나와, 부상에 떠오른다, 그래서 일본이라 한다 |
| 3) | 해 뜨는 곳 | | |
| 4) | 태양 | 天子 (작자 자신을 비유한다는 설도 있음) | |
| 5) | 일본 | 일본 | 여러 이름이 있다 |
| 6) | 동쪽 and 일본 쪽 | 일본 | 사무치게 그리운 고향, 먼곳, 동쪽 |

위의 표에서 일본을 은유하는 2), 5), 6)의 <일본의 개념요소> 중에서 공통되는 개념요소는 <해 뜨는 곳>, <동쪽>, <먼곳>이다. 방향과 해 뜨는 곳으로서 부상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 浙江省 鄞縣(오늘의 寧波)의 동쪽의 太白山 속에 있는 절.

3. 고려의 扶桑

신라나 고려 때에 지어진 한시문에서 扶桑이 사용되는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18개의 문집류(삼국유사포함)로부터 해당부분을 뽑아서 분석을 하였다. 이때 부상이 <동해>, <해 뜨는 곳> 등과 같은 방향이나 자연물을 환유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라, 고려, 일본을 은유하고 있는 것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저자의 생존연대는 1400년 이전의 인물로 한정하되 조선 조정에 벼슬한 사람은 제외하였다.

본고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문집류는 아래와 같다 20).

- 1 : 孤雲集 2 : 三國遺事 3 : 東國李相國全集 4 : 動安居士行錄 5 : 洪崖先生遺稿
 6 : 益齋亂稿 7 : 及菴集 8 : 稼亭先生文集 9 : 雪谷集 10 : 遁村雜詠
 11 : 牧隱詩稿 12 : 圓齋集 13 : 圃隱集 14 : 楊若齋先生學吟集
 15 : 耘谷行錄 16 : 石灘集 17 : 陶隱集 18 : 麟齋遺稿

- * 앞의 숫자는 이후 인용할 경우에 작품집의 번호로 사용하기로 한다.
- * 이 번호의 방선 뒤에 오는 숫자는 그 작품의 권수를 나타낸다.

1350년대 무렵, 고려에서는 원나라 연호 사용을 금지하거나 쌍성총관부를 회복하거나 하는 원나라의 쇠퇴가 두드러지는 시기이었다. 이 시기에 일본에서는 왕조가 남북조로 나뉘어 왕권을 다투는 전쟁이 발발하였고 그 과정에서 많은 수의 왜구가 발생하였다. 이들 왜구는 고려의 각처를 약탈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위의 문집류에 보이는 扶桑의 사용 예를 보면 1350년도 이전과 이후에는 그 은유하는 경향에 있어서 큰 특징이 보인다. 즉, 1350년 이전에는 신라나 고려만을 은유하며 일본을 은유하는 경우는 전혀 없고 1350년 이후에는 고려와 일본을 은유하는 두 가지 경향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두 시기로 나누어 분석하기로 한다.

1) 1352년대 이전의 扶桑

본 항목에서는 1350년대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신라나 고려를 은유하는 것만을 대상으로 그 특징을 분석해보기로 한다.

20) 원문텍스트는 민족문화 추진회의 한국문집총간 사이버 검색자료를 사용하였고, 각 문집의 국역본을 입수하여 그 국역문을 원문 뒤에 붙였다(각 국역본 표기 생략). 국역본을 입수하지 못한 일부는 필자 역.

아래에 9개의 사용 예를 열거하였다.

- 1) 今朝慧日出扶桑, 認得文殊降東廟。(오늘아침 지혜의 해가 부상에 뗏으니, 문수께서 동묘에 강림했음을 알겠네.); 1 詩(贈希朗和尚)
- 2) 奄有下土, 保我子孫, 爲民父母, 根深桃野, 派遠桑浦。(국토를 비추시고, 우리 자손을 보호하시며, 백성의 부모되옵시니, 그 뿌리 桃野에 깊었고, 줄기는 멀리 桑浦에 뻗으셨습니다.); 1 碑銘(嵩福寺碑銘)
- 3) 統扶桑之東國, 宅松麓之上都, 以明堂正寢之未修, 居別館離宮者已久。(扶桑의 東國을 통일하고 松岳山 기슭의 上都에 자리잡으셨으나 明堂의 正寢이 아직 수리되지 못한 까닭으로 별관인 離宮에 거처하신 지 이미 오래이옵니다.); 3-19, 雜著·口號(丁巳年上元燈夕。教坊致語口號。)
- 4) 帝卽肯允, 於是輔子以沖和之氣, 益爾以峻爽之資, 凡載錄, 車百兩馬萬蹄, 踵隨于後, 遣生於東海扶桑隅日始出之邦矣。(상제께서 곧 允許하시니, 그제야 오자에게 沖和한 기운을 輔翼하고 峻爽한 자질을 덧붙여 주며, 무릇 목록에 적힌 수레 1백 대와 말 1만 필을 뒤따리어, 東海의 扶桑 모퉁이 해 돋는 나라에 태어나도록 보냈었습니다.); 3-26, 書(代仙人寄予書)
- 5) 四千里外獨歸身, 山河雖隔扶桑域。(사천 리 밖에서 홀로 오는 신세라네, 산하는 비록 扶桑 지역 가렸으나); 6-4, 詩(將東歸)
- 6) 臣謹當感聖化於桑域, 庶臻魯一變之期, 湊忠誠於藥宸, 永貢嵩三呼之祝。(신은 삼가 聖上의 덕화를 扶桑땅에 퍼서 魯 나라가 한 번 變하기를 기약하오며, 충성을 아름다운 宮殿에 바쳐 길이 嵩山에서 세 번 만세를 부르는 축하를 드립니다.); 6-8, 表○牋(乞比色目表)
- 7) 手挽斗柄挹天漿, 豈憶丹樞垂扶桑(천장을 떠내는 두병을 잡았는데, 扶桑에 드리운 丹樞 생각하겠는가); 6-4, 詩(後儒仙歌)
- 8) 天護山雲休鎖洞, 更教大日照扶桑。(천호산 골짜기에 은거하며, 대일여래로 하여금 扶桑을 비추게 한다.); 7-2, 律詩(大華嚴教觀海峯都講主歸開泰寺。~ 하략)
- 9) 弧矢高門志四方, 宦遊萬里近扶桑。(활과 화살을 문 높이 걸어두니 대장부 뜻이 사방에 있도다, 고향 떠나 벼슬길 만리 扶桑에 가깝다.); 8-15, 律詩(壽揭以忠)

1)은 희낭화상을 찬양하는 최치원의 시로, 지혜의 해는 곧 문수보살이고 부상은 곧 동묘(신라)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희낭화상은 문수보살로 비유되고 있으며, 부상은 곧 신라를 은유하고 있는 것이다.

2)는 신라의 원성왕과 경문왕을 찬양하는 내용인데, 두 왕을 「嶠夷太陽」²¹⁾에 비유하여 그것이 국토를 비추며 줄기가 「桑浦」에 뻗었다고 말

하고 있다²¹⁾. 이것은 태양은 곧 扶桑임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 부상의 줄기가 「桑浦」, 즉 신라에 뻗었다는 것으로 원성왕과 경문왕의 덕이 신라에 비치며 뻗어있다고 찬양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碑銘으로부터는 앞에 들었던 山海經의 「湯谷上有扶桑, 十日所浴, 在黑齒北, 居水中, 有大木, 九日居下枝, 一日居上枝.」와 十洲記의 「有天帝宮東王公所治」, 『楚辭章句』의 「東君」이 상기된다.

3)은 唐樂呈才(궁중에 전하는 唐樂양식의 춤. 춤의 앞과 뒤에 순한문의 致語와 口號를 읊어 祖宗의 공덕을 추앙하고 왕실의 번영을 송축한다.) 때의 口號로, 고려가 扶桑에 있는 동국(신라, 후고구려, 후백제)을 통일하였다고 전제하는 대목이다. 여기서의 「扶桑之東國」은 「부상에 있는 동쪽나라」라는 의미도 되지만, 「부상인 동쪽나라」라는 의미로서 「동국」은 곧 「부상」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여기서의 부상은 「부상 나무 있는 곳」 또는 「해 뜨는 곳」을 환기시키면서 고려를 은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는 이규보 자신이 천제의 명으로 고려에 태어난 신선이라 하며, 현실세계에서 자신을 알아주지 않음을 천제에게 바치는 편지 형식을 빌어서 한탄하는 내용이다. 이규보가 태어난 고려는, 「동해부상 모퉁이(東海扶桑隅)」이며 「해가 처음으로 뜨는 나라(日始出之邦)」라고 한다. 여기서의 부상은 동해(고려의 동쪽바다)에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한 모퉁이에 고려가 위치하므로 고려도 부상의 일부분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부상은 해가 떠오르는 곳이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부상은 동해나 해 뜨는 곳을 환기시키며 고려를 은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는 이제현이 충혜왕의 왕위계승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나라에 갔다가 고려로 돌아오는 도중에 멀리 객지에서 고려 쪽을 바라보며 감회를 읊은 시이다. 여기서의 중국의 산하가 「扶桑域」을 가리고 있다고 하여, 「부상 땅」 「부상나라」 「부상지역」의 의미로 쓰이고 있으므로 동쪽을 환기시키며 고려를 은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6)은 원나라가 자국민과 주변 민족의 계급을 정하여 통치함에, 제1위에 몽고인, 제2위에 色目人(터키, 이란, 아라비아 등), 제3위에 漢人·고려인, 제4위에 南宋人 순으로 두었다고 하는데서, 고려인을 색목인과 동등한 제2위

21) 暘是 중국의 동방에 있으며 태양이 나온다고 상상한 산으로 여기서는 신라를 비유.

22) 「派遠桑浦」

로 올려달라고 청원하는 「表」이다. 원나라 황제의 德化를 부상 땅(桑城)에 퍼졌다고 하니, 일단 「동쪽」을 환기시키면서 고려를 은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7)은 죽은 친구 崔瀧(拙翁)를 그리며 지은 시이다. 최해가 더 좋은 곳인 天上에서의 생활이 있는데(斗柄挹天漿 : 天上의 甘汁을 뜨는 국자를 잡았는데), 그 보다 못한 고려에서의 생활(丹樞垂扶桑 : 부상에 달린 붉은 오디)을 생각하겠는가라는 취지이다. 여기서의 부상은 부상나무와 9천년에 한번 열리는 大樞, 그리고 그것을 먹는 仙人을 환기시키며 고려를 은유하고 있다. 여기서는 고려에서의 생활이 천상에서의 그것보다 못하다고 읊고 는 있지만, 고려에서의 생활도 나쁘지는 않은 달콤한 생활임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8) 논산군 천호산 개태사에 있던 해봉노사와의 추억을 읊은 시인데, 大日(큰 해 혹은 大日如來)로 하여금 扶桑을 비추게 한다는 구절이다. 여기서는 大日을 해봉노사에 은유하며 부상을 고려로 은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9)는 원나라 理問으로 온 揭以忠의 장수를 기원하는 축시로, 여기서의 부상은 직접 고려를 가리키지는 않고 고려는 부상에 가깝다고 한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부상은 「부상나무」 「해 뜨는 곳」 「동해」를 환기시키고 있다.

이상으로 9개의 사용 예에 관해 부상이 신라나 고려를 은유하는 근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위에 제시한 9개의 예문을 포함 그 밖에 제시되지 않은 부분까지 참고하여 각각의 「개념요소」와 함께 아래의 표로 정리하였다.

표5) 신라·고려인의 작품에 보이는 부상의 환유·은유와 신라·고려의 개념요소

| | 환유 | 은유 | 신라나 고려의 개념요소 |
|----|-----------------------|----|--|
| 1) | 동쪽 | 신라 | 지혜의 해 뜨는 곳, <u>문수보살(지혜의 해)같은 희낭화상이 강림한 곳</u> |
| 2) | 동쪽포구, 부상나무, 부상 가지의 태양 | 신라 | <u>嵎夷(신라)는 日出處, 태양(원성왕,경문왕)이 비추는 곳, 부상나무의 가지가 뻗어 있는 곳, 태양을 가지에 얹은 부상나무</u> |
| 3) | 부상나무 있는 곳 and 해 뜨는 곳 | 고려 | <u>東國, 성군이 다스리는 나라</u> |
| 4) | 동해 and 해 뜨는 곳 | 고려 | <u>동해, 부상모퉁이, 해 돌는 나라, 천상에서 온 신선을 몰라보는 나라</u> |
| 5) | 동쪽 | 고려 | <u>4천리 밖(먼 곳)</u> |
| 6) | 동쪽 | 고려 | 원나라 부마국, 원과는 本支관계, 色目과 동등 |
| 7) | 부상나무, 大樞, 仙人 | 고려 | <u>丹樞(고려·이승에서의 달콤한 생활)</u> |

| | | |
|---------------------------|----|----------------------|
| 8) 동쪽지역(나라) | 고려 | 大日(대일여래=해봉노사)가 비추는 곳 |
| 9) 부상나무 and 해 뜨는 곳 and 동해 | | 부상에 가깝다 |

위의 표에서 신라나 고려의 개념요소가 표1)에서의 <중국문헌에 보이는 부상의 개념요소>와 공통되는 개념요소는 밑줄 친 부분이다. 위의 표에서 <동쪽, 해 뜨는 나라, 먼 나라, 동해>와 같은 기본적인 개념요소들이 표1)과 대응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밖에, 1)에서는 태양을 문수보살(회낭화상)에 비유하여 중국의 『楚辭章句』에서의 「東君」의 개념요소와 대응 관계를 보이고 있다. 2)에서도 신라의 원성왕과 경문왕을 태양에 비유하여 「東君」과 대응하며 그 신성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발상은 3)에서의 「성군이 다스리는 나라」의 개념요소에서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또, 8)에서도 고려를 「大日(대일여래=해봉노사)가 비추는 곳」이라고 하여 역시 「東君」과 대응관계를 가지며 신성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7)에서는 고려에서의 생활이 <달콤한 생활>임을 <丹楨>이라는 개념으로 직접적으로 대응시키고 있다.

이처럼, 부상이 신라나 고려를 은유하는 경우에는, 보다 확장 된 개념요소가 보임을 알 수 있다.

2) 1352년대 이후의 扶桑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1352년을 기점으로 고려에서는 쌍성총관부를 회복하고 원나라연호 사용을 금지하는 등 元의 쇠퇴와 더불어 왜구의 侵寇가 기승을 부린다. 이 시기 이후의 고려 한시문에서의 「扶桑」사용의 경향에 큰 특징이 보이는데, 「扶桑」이 고려뿐만 아니라, 일본도 은유하며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본 항목에서는 「扶桑」이 고려와 일본을 은유하는 한시문을 뽑아서 그 사용의 특징을 분석해보기로 하겠다.

(1) 고려를 지칭하는 경우

고려의 문인들이 「扶桑」을 고려로 은유하며 사용하는 한시문(詩11, 雜著1) 12문 중에서, 「扶桑」이 보이는 곳을 중심으로 부분 발췌하여 아래에 열거하였다.

- 1) 朋來自遠從今始, 門立扶桑海外人。(멀리서 벗이 찾아옴은 지금부터 시작이니/ 문에는 부상에서 온 해외인이 서있네.); 11-2詩 (上達兼善尙書)
- 2) 北去提封連霽水, 東漸罄教入扶桑。(북으로는 封疆이 습수에 이어졌고 / 동으로는 성교가 扶桑에 들어갔네.); 11-5詩 (懷古)
- 3) 三韓賴與扶桑近, 捧日咸池照八埏。(삼한은 다행히 부상과 가까워서/ 함지의

- 해를 받들어 세상 끝까지 비추네.) ; 11-9 詩 (獨坐)
- 4) 扶桑西畔一迂儒, 曾走中原老海隅。(부상 서쪽 물가에 한 물정모르는 선비/ 전에는 중원을 누볐는데 지금은 바다 한 귀퉁이에 있는 늙은이.) ; 11-33 詩 (自詠)
- 5) 投絨歸來東海西, 樽桑萬里碧天低。(벼슬 버리고 동해의 서쪽으로 돌아오니 /해돋이라 만 리에 푸른 하늘 나직도 한데/) ; 11-19 詩 (卽事)
- 6) 行行萬餘里, 繫馬扶桑枝。(주탁이 만 여리 되는 길을 멀리 찾아와, 부상나무 가지에 말을 매었네.) ; 13-2 詩 (乙丑九月. 贈天使周倬。)
- 7) 曉日照耀扶桑叢, 海波沸出珊瑚紅。綠雲冉冉動光彩, 下有突兀蓬萊宮。(아침 해가 비추어 부상 떨기 빛내고, 바다 물결 끓여서 붉은 산호 내밀며. 녹색 구름 뭉게뭉게 찬란한 빛내는 곳. 그 아래에 우뚝이 봉래궁이 있거니와) ; 13-2 詩 (重贈林主事)
- 8) 繼余馬兮扶桑, 悵何時兮與遊讌。(나의 말은 부상에 매어 있으니, 서운하다 언제 함께 놀아 볼는지.) ; 13-3 雜著 (寄浙東佩玉齋郝士安)
- 9) 回首扶桑一惘然。(머리를 동으로 돌려도 한결같이 아득해) ; 14-下 詩 (感懷)
- 10) 日出樽桑照遍, 餘輝一幅丹青。(부상에서 해가 돌아 두루 비추니/ 한 줄기 은은한 빛 단청으로 남다.) ; 15-3 詩 (讚懶翁眞)
- 11) 扶桑出日明台嶺, 渤海洪濤接越天。(부상에 해가 올라 태령을 밝히니/ 발해의 큰 물결 하늘을 넘나들 듯 접해있네.) ; 16-上 詩 (送胡若海照磨還台州東人詩話曰。讀此詩。其氣象可知矣。)
- 12) 中興功業冠巖廊, 昭洗漢儀輝扶桑。(功業이 크게 일어 조정의 벼슬을 쓰니 /한나라의 풍속으로 밝게 씻어 부상을 빛내네.) ; 18 詩 (南行錄, 遣興二十八句)

1)은 목은 이색이 원나라사람 겸선의 훌륭한 점을 찬양하는 내용의 시로, 여기서의 「멀리서 찾아온 벗」·「扶桑海外人」은 이색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중 「扶桑海外人」은 부상에서 온 해외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때의 부상은 고려를 은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고려의 창업과 왕조의 번성, 중국 천자의 강역과 성교가 북과 동으로 뻗어 평화로운 가운데 전쟁의 징조가 보인다는 취지의 시로, 중국 천자의 성교가 드는 곳은 고려라는 것이다.

3) 이색이 홀로 창가에 앉아 옛날 원나라에 다녀오던 일을 상기하며 읊은 시이다. 이곳에서의 부상은 삼한(고려)에 가까운 것이지 그 자체라고 은유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함지의 해를 받들어 세상을 모두 비춘다는 표현으로 보아 山海經의 「湯谷上有扶桑, 十日所浴... 居水中, 有大木, 九日居下

枝, 一日居上枝.] 에서처럼 해를 가지에 얹고 있는 부상나무의 모습을 환기시킨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4)는 이색 자신을 부상 서쪽의 물정 모르는 선비로 규정하고 이해득실에 따라 파당 짓는 세태를 한탄하는 시의 제1구와 제2구이다. 「扶桑西畔」과 「海隅」는 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로서 고려를 은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보면, 여기서의 「扶桑」과 「海」는 같은 것이 된다. 부상은 동해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일부인 고려도 그 권역에 들어간다는 인식하의 용자법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부상은 동해를 환기시키며 고려도 포함하는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는 이색이 원나라에서 돌아와 보니 문장은 시원찮으면서도 파당을 지어 벼슬에만 집착하는 풍조이므로 이를 비판해서 지은 시이다. 여기서도 4)에서와 같은 발상의 표현법이 보인다. 즉, 고려는 동해의 서쪽이라 하는데, 이 동해는 부상과 같은 곳에 위치함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부상도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부상과 가깝다는 발상과 같은 것이다.

6)은 주탁이라는 중국 사신을 찬양하는 시로서, 부상가지를 고려에 비유하고 있다.

7)은 임실주라는 중국의 사신을 찬양하며 송별하는 시이다. 제13구, 제14구에 대명천자의 사신인 임실주가 호기롭게 고려로 온다는 소식에 고려의 왕이 손수 마중한다는 대목이 보인다(東君聞之喜且驚, 霓旌羽蓋來相迎: 東君이 이를 듣고 기쁘고도 놀라와, 예정과 우개 등이 나와 마중하도다.). 「東君」은 고려왕을 은유하는 것으로, 『楚辭章句』의 「東君」에서는 부상은 「東君」의 난간이라고 하므로 결국 부상은 고려를 가리킨다고 보아야한다.

8)은 겹사안이라는 중국의 벼슬아치와 만나지 못함을 아쉬워하며 왜구에 관한 동병상련을 읊은 시이다. 부상나무를 직접 고려로 은유하고 있다.

9)는 김구용이 진양도호부 관관으로 근무할 때의 감회를 읊은 시로, 여기서의 부상은 단지 동쪽(고려 쪽)이라는 방향을 가리키며 고려를 은유하고 있다.

10)은 원천석이 나옹화상의 영정 앞에서 찬양하는 시를 읊은 것으로, 나옹화상이 1347년 원나라로 건너가서 燕京의 法源寺에서 인도의 승려 指空에게 4년간 지도를 받고 깨달음을 얻어 귀국한 일을 상기시키고 있다. 본 시에서 「東韓日月照西乾(동쪽 韓國의 해와 달이 서쪽 하늘을 비추었구

나)」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해와 달은 나옹화상을 가리키는 말로 원나라(西乾)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비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위의 예시문10)의 「日出博桑照遍」는 귀국 후의 나옹화상의 모습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태양(日)도 나옹화상이며 博桑은 고려를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은 1366년 6월에 고려로 사신 왔다 돌아가는 중국 사신 胡若海에게 준 송별시의 제5,6구이다. 부상에 해가 떠서 발해를 비춘다는 것인데, 碧海와 동쪽 해 뜨는 곳이 환기된다. 이때의 고려는 대륙의 새로운 패자로 부상하는 명나라와 쇠퇴해 가는 원나라와 등거리 외교를 하며 기울어가는 국운을 일으키기 위해 애쓰던 중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이 시에서의 부상은 고려를 암시하며 발해의 하늘을 넘나들 듯 한 큰 물결은 대륙의 격변하는 정세를 암시한다고도 보여 진다.

12)는 이종학이 1389년 부친 이색과 함께 유배 가는 길에 읊은 시 중의 제19, 20구이다. 과거에 부친 이색이 원나라에 갔을 때의 애국충절의 행적을 회고하고 고려의 붕당을 한탄하며 禍福은 일시적인 것임을 읊었다. 漢儀(중국의 풍속)로 밝게 씻어 扶桑을 빛낸다고 하니, 여기서의 부상은 고려를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부상이 고려를 은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 12개의 용례를 살펴보았는데, 아래에 각각의 한시문에 보이는 고려(삼한)에 관한 개념요소와 함께 표로 정리하였다.

표6) 고려인의 작품에 보이는 부상의 환유·은유와 삼한·고려의 개념요소

| | 환유 | 은유 | 삼한이나 고려의 개념요소 |
|-----|-------------------------|------------|---|
| 1) | 동쪽 or 해 뜨는 곳 | 고려 | 먼 곳, 바다바깥(海外) |
| 2) | 동쪽 | 고려 | 태평성대, 소나무울창, 중국 천자의 성교가 미치는 곳 |
| 3) | 해를 가지에 얹은 부상나무, 해뜨는곳 | 삼한 (고려) | 부상에 가깝다, 함지의 해를 받들어 세상 끝까지 비추는 존재 |
| 4) | 동해 | 고려 | 부상의 서쪽물가, 바다 한 귀퉁이, 이해득실에 따라 파당 짓는 세대 |
| 5) | 동해, 해 뜨는 곳 | 고려 | 동해의 서쪽, 산천의 기운이 빼어나 영결을 일으킨다 |
| 6) | 부상나무 | 고려 | 중국으로부터 만 여러(먼 곳), 동해가, 부상나무 있는 곳, 중국 천자의 龍榮입는 곳 |
| 7) | 동해 and 해 뜨는 곳 | 고려 | 해 뜨는 곳, 봉래궁있는곳, 東君(고려왕에 비유)이 다스리는 곳, 조선의옛터, 明疇聖人(箕子)이 머물던 곳 |
| 8) | 부상나무 | 고려 | 부상나무 있는 곳 |
| 9) | 동쪽 | 고려 | 동쪽, 아득히 먼 곳 |
| 10) | 동쪽 and 해 뜨는곳 | 고려 | 東韓, 日月이 떠올라서 西乾을 비추는 곳 |
| 11) | 해 뜨는 곳 | 고려 | 箕封의 나라, 民俗이 淳厚(두텁다) |
| 12) | 동쪽지역 | 고려 | 동쪽나라, 봉당이 성행(賢良이 다하다), 중국의 풍속으로 밝게 씻는 |

歌)

- 10) 扶桑日出思徐福。(부상일출은 서복이 생각난다); 11-16詩 (獨坐)
- 11) 威聲震動扶桑日, 喜氣熏成撲地春。(위엄있는 소리가 부상의 해를 진동하고, 기쁜 기운은 온누리의 봄을 이루는구려.); 11-25 詩 (聞羅, 沈, 崔三元帥舟師回。病不能郊遊。)
- 12) 病發不時深閉戶, 想看風彩燦扶桑。(불시에 병이 발작해 문 닫고 들앉아서 /동녘에 빛날 풍채만 상상할 뿐이로세); 11-25詩(判三司事。領諸元師。追倭賊。將啓行。僕以病難於騎馬。惘然吟成 一首。)
- 13) 樽桑國界我東邊, 利見臺高控海天。(일본국은 우리나라 동편에 경계하였고 /이건대는 바다 하늘에 높이 솟았는데); 11-20 詩 (睦二相與諸元帥發行。予以脚無力不能騎。關於拜送。獨吟 二首。)
- 14) 地近扶桑曉日紅, 但道神仙居海上, 誰知民社在天東。(땅이 부상 가까워 새벽 해 붉네, 바다에 신선 산다 말은 전해 왔었으나, 동쪽 끝에 민사가 있을 줄 뉘 알았으랴); 13-1詩 (洪武丁巳奉使日本作 其七。)
- 15) 奉使遊桑城, 從人間土風。(사명을 받들어 부상에 와서 사람에게 이곳의 풍속을 물으니); 13-1 詩(洪武丁巳奉使日本作 其十一。)
- 16) 遠自扶桑渡杳茫。(멀리 부상으로부터 멀고 광활한 바다를 건너왔다.); 15-2 詩(丙辰開九月。日本諸禪德來此。其叢林典刑。如我國之制。作一詩以贈。)
- 17) 木道向扶桑。(배타고 부상 향해 가는구나.); 17-2 詩 (送復菴游日東求法)

1)은 일본으로 倭寇禁圧 교섭으로 파견되는 정몽주에게 준 送別辭로, 일본의 정치상황·제도·민속 등을 열거하며 정몽주의 무사하고 성공적인 사명완수를 기원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扶桑之域」에 「日出處之天子(일본 천황)」이 터전을 잡았다고 하니, 부상은 곧 일본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는 윤중암이라는 일본 승려를 논하는 <賦>이다. 여기서의 <扶桑翁>의 의미는 <동쪽에서 온 노인><일본에서 온 노인>, 그 어느 쪽도 해당이 된다고 본다.

3)은 왜구침입의 참상과 적극 대응해야 할 호국자세를 읊고 있는데, 여기서의 부상은 위에 예시한 3)의 詩題에서와 시구 속에서 각각 사용예가 보인다. 시의 제1, 2구에서는 「六龍捧日扶桑東。夜半浴海波濤紅。(부상의 동녘에서 육룡이 해를 받드니, 밤중의 옥수해에 파도가 붉네.)」라고 있어, 부상의 동쪽에 해가 떠오르는 것을 고려의 왕이 받들어서 그 덕이 사방을 밝힌다는 취지로서 시의 冒頭부분을 장식하고 있다. 여기서 해가 떠오르는 지점은 부상의 동쪽이라고 되어있다. 이 부상은 단지 해가 떠오르는 기점

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일본을 은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다>나 <해뜨는 곳> 정도를 환기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와는 달리 詩題에 사용하고 있는 「부상을 읊는다(扶桑吟)」고 할 때의 부상은 일본을 은유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시의 전체 내용은 일본에 관한 내용으로서, 서북이야기나 왜구의 야만스러움에 관한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詩題는 <日本吟>이라고 바꾸어 말해도 이상할 것이 없지만, 제1구에서 <고려의 왕이 일본의 동쪽에서 해를 받든다>라고 바꾸어 표현한다면 자연스럽지가 않다. 그러므로 3)의 시에서 사용되고 있는 「扶桑」은 詩題의 것만이 일본을 은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는 이색이 친구를 대신하여 정몽주의 일본사행을 송별하는 시로서 성공적인 목적수행(왜구금압·피납인 송환)을 기원하고 있다. 여기서의 <부상>은 부상나무 그 자체로서 그곳에 열린 <큰고치(大藪)>를 만드시 따라지고 돌아오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상나무는 목적수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큰 고치>의 본체에 해당하는 일본(또는 교섭상대)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5)는 이색이 일본에서 온 使僧에게 준 시로서, 그 使僧을 <扶桑翁>이라고 호칭하고 있는데, 이미 2)의 예에서도 있었다. 여기서도 <동쪽에서 온 노인><일본에서 온 노인> 그 어느 쪽도 가능한 의미라고 본다.

6)은 佛法을 구해 분주히 일본과 중국을 오가는 신라(고려)승려를 송별하는 시이다. 여기서의 승려가 부상을 향해 갔다고 하니, 동쪽이 환기되면서 일본을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은 일본(東国)이 文을 폐하고 武를 숭상하여 춘추전국과 같은 혼란한 지경이 되고 이웃에 兵亂을 안기는 상황과 앞날을 걱정하는 3首의 시 중에서 첫째 首의 제1,2구와 둘째 首의 제1,2구이다. 이곳에서는 <桑墟>와 <墟>로 쓰고 있는데, 앞서서도 나왔던 <桑域>과 같은 정도의 의미로서 <부상 땅>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

8)은 왜구를 물리치는 상황을 고래 잡는 소리에 비유하여 읊고 있다. 고래잡는 여향이 부상을 진동한다고 하니, 이는 해 뜨는 동해바다(혹은 동쪽)를 환기시키면서 왜구(고래)의 소굴인 일본을 은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9)는 이색이 구룡산에 있는 고려의 國祖 聖骨將軍의 사당을 참배하며 왜구의 침입을 당하여 陸戰을 하는 모습을 보고 그의 지론인 海戰을 염두에 두는 듯한 내용을 읊고 있다. 여기서 <적의 배를 부상으로 소탕해 버리

면>이라고 있는데, 이때의 부상은 海戰을 통하여 동해로 쫓아 버리자는 취지이니까, 동해가 환기되면서 최종적으로는 일본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인다.

10)은 개성 어디쯤 인가의 집에서 동쪽 산을 바라보며 긴 한낮의 상념을 읊은 듯한 시이다. 부상의 일출로 인해 서북이 생각난다고 하므로 이때의 부상은 <동쪽> 나아가서는 <일본>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11)은 병으로 인해 최무선 장군 등의 왜구 격과 凱旋에 나가보지 못하는 감회를 읊고 있다. <위엄 있는 소리가 부상의 해를 진동>한다고 하니, 부상의 해는 왜구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부상은 왜구의 소굴인 일본 자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12)는 이색 자신은 말타기 조차 어려울 만큼 병든 가운데, 왜구를 추적하는 장군들을 보내며 전승을 기원하는 시이다. <동녘에 빛날 풍채만 상상할 뿐이로세>라고 하여, 고려 장군들이 승리를 거두어 빛나는 당당한 모습으로 개선하기를 기원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부상>은 일단 동녘을 환기시키지만, 일본 쪽을 염두에 두어 일본의 왜구에 대한 승리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13)은 목이상이 칠순의 나이에 불구하고 왜구 소탕을 위해 출전하는데 자신은 병으로 바라만 보아야 하는 무기력감과 일본에서의 陪臣의 발호 등을 두 개의 首로 읊고 있는 중에, 두 번째 首의 제1,2구이다. 여기에서 「樽桑国界我東邊」의 해석에는 두 가지가 가능하다고 보여 진다. 첫째는 <樽桑의 国界는 우리나라 동쪽 끝(부근)>이고, 둘째는 <樽桑国의 경계는 우리나라 동쪽 끝(부근)>이다. 첫째 해석을 취하면, 이때의 부상은 <동쪽, 동해>를 환기시키며 일본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해석을 취하면, <부상국>은 <일본국>의 다른 호칭으로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두 번째의 해석을 취하여 <부상국>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이것이 곧 일본의 이칭으로서 의식하여 사용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앞에서 원나라의 문인이 이곡에게 준 송별시에서도 고려를 <부상국>.이라고 칭한 경우도 있고, 이곳 외에 일본을 <부상국>으로서 확고한 것으로 칭하는 예는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튼 어느 쪽이든 여기서 <동쪽, 동해>를 환기시키며 일본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4)는 정몽주가 일본에 가서 지은 시 14수중 하나로, 일본은 신선이 산다고 들어서(아마도 서북이 신선의 불노초를 찾아 일본으로 간 일을 말하는

듯), 신비스러운 대상이었으나 백성과 사직이 있다는 새삼스러운 자각과 함께 일본의 복식, 染齒 등의 풍속을 推古한다. 여기서는 일본이 부상 그 자체는 아니다. 일본 땅은 부상에 가깝다고 옳고 있다. 그러므로 부상은 해 뜨는 곳을 환기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5)도 정몽주의 일본 使行詩로 일본의 土風(染牙, 脱履)을 기록하며 객지에서서의 적적한 감상을 읊는다. 여기서의 「桑域」은 「부상의 땅」으로서 해 뜨는 곳 혹은 동쪽 땅 정도의 의미로 해석된다.

16)은 원천석이 일본으로부터 여러 명의 선승들이 使僧으로서 왔을 때 읊은 것으로서 만물이 부처라는 취지의 시이다. 선승들이 부상으로부터 왔다고 하니, 동쪽을 환기시키며 일본을 은유하고 있다.

17)은 이송인이 북암이라는 승려가 일본에 佛法을 구하러 가는 것을 송별한 시이다. 「부상으로 향하였다」고 하니, 동쪽을 환기시킨 후에, 일본을 지칭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부상이 일본을 지칭하며 은유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예를 그 근거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는데 각각의 시문에서 일본에 관한 개념요소들과 함께 아래 표에 정리하였다.

표6) 고려인의 작품에 보이는 부상의 환유·은유와 일본의 개념요소

| | 환유 | 은유 | 일본의 개념요소 |
|-----|---------------|----|--|
| 1) | 해 뜨는 곳 | 일본 | 동방, 해 뜨는 곳, 동풍이 따뜻하게 부는 곳, 태초부터 자존의식 강함, 말씨 온순하나 늠름하고 강력함을 숭상, 명예존중, 죽음에 용감, 천하무적, 보복심 강함, 패륜이다(부모형제, 처자식을 모른다), 전국 시대모방, 못 흉적이 날 뛰는 곳, 폐쇄적, 의관제도가 옛 그대로 |
| 2) | 동쪽 | 일본 | 깊은 깨달음을 발하는 老僧의 나라 |
| 3) | 동해 and 해 뜨는 곳 | 일본 | 동쪽, 동해, 서북이 도망친 곳(옛날 신선이 살던 곳), 오랑캐(蠻貊) |
| 4) | 부상나무 | 일본 | 먼 곳, 부상나무 있는 곳, 큰 고치 있는 곳(왜국금압) |
| 5) | 동쪽 | 일본 | 바다에서 아침 해 뜨는 곳, 수많은 봉우리가 이어진 곳 |
| 6) | 동쪽 | 일본 | 佛法을 구하는 곳 |
| 7) | 해 뜨는 곳 | 일본 | 東國, 아주 먼 곳(서리와 이슬이 내리는 천지 밖), 桑墟, 왕업을 세운 것은 아득한 옛날, 바다 속의 섬, 鬼域, 해약이 크다, 예속이 춘추전국시대 초기, 칼을 숭상(목숨을 가벼이 여긴다), 글에 능통한 이 적다, 藩邦장수가 때때로 고려에 조공 |
| 8) | 동해 | 일본 | 동쪽(해와 달이 뜨는 곳), 먼 바닷가, 왜구의 나라 |
| 9) | 동쪽 | 일본 | 동해, 왜적, 싸워 이겨야 할 대상, 예약으로서 다스리지 않는 나라 |
| 10) | 동쪽 and 해 뜨는 곳 | 일본 | 서북이 간 곳(옛날 신선이 살던 곳) |
| 11) | 동쪽 and 해 뜨는 곳 | 일본 | 동쪽, 섬 지방(해적횡행), 짐승(궁하면 움키는 존재), 우리변방 어지럽혀 잦은 기근 들게 한다 |
| 12) | 동쪽 | 일본 | 동녘, 왜적 |
| 13) | 동쪽 or 동해 | 일본 | 고려의 동편에 경계, 섬 오랑캐, 국왕은 속박되어 스스로 권력을 잃었다(陪臣이 권력을 잡음), 白雉라는 연호(孝德천황.650~654)를 썼 |

| | | |
|-----|---------------|--|
| | | 던 적이 있는 나라 |
| 14) | 해 뜨는 곳 | 일본 (가깝다), 서북의 후예들이 산다(斑衣想自秦童化), 오랜 역사와 전통(山川井邑古今同), 낮선 풍속(染齒) |
| 15) | 해 뜨는 곳 or 동쪽땅 | 일본 낮선 풍속(染齒, 脫履邀尊長), 고려만 못하지만 자연은 아름답다(藥圃의 깊은 눈 속의 신록, 梅村, 붉은 꽃) |
| 16) | 동쪽 | 일본 광활한 바다를 격해 있다, 멀다, 일본의 불교는 선종이다 |
| 17) | 동쪽 | 일본 求法하는 곳(불교가 성한 곳, 임제종) |

위의 표의 각각의 개념요소 중에서, <표1> 중국문헌에 보이는 부상의 개념요소>의 것과 일치되는 것을 보면, 신라나 고려의 것에 비해 기본적인 개념요소 외의 것으로의 확장성이 보이지 않는다. 즉, 대부분이 <동쪽, 해 뜨는 곳, 동해, 먼 곳, 섬, 부상나무 있는 곳>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요소를 보이고 있다. 또, 3)의 <서북이 도망친 곳>, 10)의 <서북이 간 곳>, 14)의 <신선이 산다고 들었다>에서처럼, 신선이 사는 곳으로서의 개념요소도 보이지만, 이것도 현재의 것이 아니라 과거의 개념요소라고 볼 수 있다. 14)에서 정몽주가 일본의 博多(하카타)에 가서 지금은 民社(백성과 사직)가 있다고 새삼스러운 자각을 읊고 있는 것으로도 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다.

5. 맺음말

중국인들이 일본인에게 준 송별시에 보이는 부상은 10예 중, 3예가 일본의 동쪽에 있다고 하여 일본과는 별개의 것으로 보고 있다. 또 1예는 고려를 부상국이라 지칭하며 일본의 위치를 알리는 기점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3예는 일본을 은유하고 있으며, 부상나무의 밑둥지(扶桑樹底)에 비유하고도 있었다. 그런데, 부상을 일본에 비유하고 있는 3예 중에서, 일본이 갖는 개념요소와 <표1> 중국문헌에 보이는 부상의 개념요소>와의 일치 정도를 보면 <동쪽, 먼 나라, 바다, 부상나무> 등과 같은 기본적인 개념요소 만이 일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 볼 때, 14세기 이전의 중국인들은 일본을 부상의 한계 범위 밖의 나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였고, 시에서 부상을 일본으로 은유할 경우에도 방향이나 위치 정도를 환기시키는 정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부상이 일본을 은유하지 않는 경우, 일부는 오히려 일본이 <仙宮>임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중국인이 일본을 볼 때, 미지의 세계로서 인식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보여 진다. 일본의 개념요소를 보면 실제 생활상이 느껴지는 부분이 보이지 않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으리라 추측 된다²³⁾.

한편, 중국인들이 신라나 고려인 혹은 신라로 가는 사신에게 준 시문에서는 15예 중에서 12예가 신라나 고려를 은유하고 있다. 이는 중국인들의 부상이라는 인식 범위에 고려가 일본보다는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상의 개념요소에 있어서는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쪽, 해 뜨는 곳, 먼 나라, 바다, 부상나무, 외로운 섬>과 같은 방향이나 위치 등과 같이 기본적인 개념요소로서 사용되고 있다. 또 일본과는 달리 그 미지의 세계로서의 신비로움은 덜 나타나며 실생활적인 내용이 많이 눈에 띄는 것이 특징적이다²⁴⁾.

일본에서 扶桑이 사용되는 예는 극히 적었다. 자신보다 동쪽에 있는 존재가 없는 것이 그 이유일지도 모른다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본다. 일본에서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개념요소가 보이는데, 한 가지 중국과 고려와도 다른 것은 日本이라는 자신의 국호와 관련지어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곳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일본에서는 扶桑을 詩的 修辭로서 보다는 자신의 국호와 관련지어 자존의식과 관련짓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²⁵⁾.

신라나 고려의 문집류에 보이는 扶桑은 그 은유하는 対象國의 출현도에 있어서 1352년대를 전후하여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 원나라가 쇠퇴하기 이전인 1352년대 이전의 한시문에서의 扶桑은 신라나 고려를 은유하며 개념요소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개념요소 외에 <東君>의 성스러운 성격과 대응시키거나 고려에서의 생활을 붉은 오디에 비유하거나 하는 개념요소의 확장이 보였다.

또, 1352년대 이후에는 부상을 일본에 은유하는 예가 급격히 늘어났다. 고려를 은유하는 것이 12예인데 일본을 은유하는 것은 17예나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을 은유하는 양적인 팽창에도 불구하고 개념요소의 일치도에서 보듯이 고려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개념요소 외에도 <東君><丹樞>과 대응시키는 개념요소의 확장이 보이는 반면에 일본의 경우는 기본적인 개념요소 외에 확장성이 보이지 않았다.

23) <표2> 중국인이 일본인에게 준 시문 중의 환유·은유·개념요소>에서 일본의 개념요소 참조.
 24) <표3> 중국인이 신라·고려인에게 준 시문 중의 환유·은유와 개념요소>에서 신라나 고려의 개념요소 참조.
 25) 예를들어, 1310년경에 만들어진 『扶木和歌集』의 발문에 의하면 「扶桑和歌集」라고 하고 싶었는데, <扶桑>은 <일본국의 總名>이므로 그를 피해서 <桑>에서 <木>자만을 취해서 <扶木>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신라·고려시대의 한시문에서의 扶桑의 사용 경향은, 일본을 부상의 한 영역으로서 인정하면서도 自國을 가리킬 때는 보다 풍부한 개념요소의 확장성이 보이고 일본을 은유할 경우에는 중국의 문인들이 부상을 신라나 고려에 은유할 경우에 나타나는 기본적인 개념요소로서의 사용과 같은 경향이 보이는 것으로 이해된다.

【参考文献】

- 大堀俊夫訳・紀伊国屋書店, 『詩と認知』 (原題: 『More Than Cool Reason : A Field Guide to Poetic Metaphor』 George Lakoff and Mark Turner, 1989)
- 『日本国語大辞典』, 小学館
- 大漢和辞典
- 『五山文学集』(日本古典文学大系所収, 岩波書店)
- 尹順, 「楚辞<<九歌・東君>>巫儀와 扶桑神話」(國際文化研究 제18집)
- 柴田清繼, 「伝説上の海島と日本」
- 中小路駿逸, 「王維が安部仲麻呂に贈った詩にあらわれる「九州」、「扶桑」および「孤島」の意味について」
- 高恵玲, 「稼亨李穀과 元 士大夫와의 交遊」(碧史李佑成教授停年退職紀念論叢, 1990)
- 金時艱, 「麗・元間 文学交流에 대하여」(韓國漢文学研究 제5집, 1980)
- いき一郎, 『扶桑国は關西にあった』, 葦書房 有限会社, 1995

要 旨

15世紀以前の中國・新羅・高麗・日本の漢詩文に見える扶桑の使い方の解明を図るのが本稿の目的である。漢詩文に用いられている扶桑を換喩・隱喩の概念として見なし、『詩と認知』(大堀俊夫訳・紀伊国屋書店, 原題: 『More Than Cool Reason : A Field

Guide to Poetic Metaphor』George Lakoff and Mark Turner, 1989)で説明している換喩・隱喩の概念を応用して分析した。中国の『山海經』や『十洲記』などの六つの典籍に見える扶桑の概念要素と唐・宋・元・新羅・高麗に見えるそれとの対比からその一致度を確認しそれぞれの使い方の特徴を見出そうと試みたのである。

中国の漢詩で日本との関わりをもつ扶桑は、日本を指すものは少なく、指すといっても大体は扶桑の基本的な概念要素として用いられていた。しかし、日本隱喩以外の漢詩における日本は仙宮などの概念要素も示していた。当時の中国人にとって日本は未知の存在で扶桑認識の限界の外の存在であったと解される。

一方、新羅・高麗のほうは、扶桑の基本的な概念要素を示すという点では日本と同じ傾向であったが、ほとんどの例が新羅・高麗をよりはっきりと隱喩していた。

日本において扶桑の見える漢詩文はその数からして極めて少なかった。しかも、その使い方にしても基本的な概念要素を示す傾向にあった。ただ、日本の場合は、扶桑を修辭としてでなく自国の国号と結び付けて論ずる傾向であった。新羅・高麗の漢詩文に見える新羅・高麗・日本隱喩の扶桑は元が衰退する1352年代を境に隱喩の在り方の大きな違いがみえる。1352年代の以前は新羅・高麗のみ見え、1352年代の以後は、高麗・日本がほぼ同じ割合に見える。新羅・高麗を隱喩する場合は、扶桑の概念要素における拡張がみえるが、日本を隱喩する場合は、基本的な要素しか見えなかった。結果的に、扶桑を新羅・高麗に隱喩する時に日本の時より拡張した概念要素を用い、より豊富な使い方をしていると言える。

キーワード : 扶桑、扶桑国、隱喩、換喩、漢詩文、認知、日本認識

투 고 : 2006. 8. 31
1차 심사 : 2006. 9. 9
2차 심사 : 2006. 9. 30

住 所 : (356-706) 忠清南道 瑞山市 海美面 大谷里 360 韓瑞大学校 日本学科
電 話 : 041-660-1231, 010-9768-0213
e-mail : tdkim@hanseo.ac.kr